

## 서울RC, 다문화 부부 결혼식 봉사 후원 장세호 차기총재 100만원 후원 및 주례 맡아



서울로타리클럽(회장 한태숙)은 2017년 11월 5일 다문화 가족 한 부부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미래사회여성 연합회와 신림동에 위치한 메모리스 클래식 웨딩홀과 함께 결혼식을 올려주는 봉사를 했다.

대상은 중국계 신랑과 한중계 신부였다. 두 명의 젊은이들은 이미 함께 동거하며 10개월된 아들이 있었다.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모범적인 커플이었다.

이날 결혼식은 국제로타리 3650지구 장세호 차기총재의 주례로 이루어졌으며 두 부부를 위해 참석한 사람들은 한태숙 서울RC회장, 강인숙 미래사회여성연합회회장과 회원들 그리고 장소를 제공한 메모리스 클래식 웨딩홀 운영진들, 꽃을 선물한 꽃집사장님, 웨딩가운을 선물한 업체사장님, 그 외 여러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이날 주례를 맡은 장세호 차기총재는 "이 결혼식은 정말 이 시대에 보

기 드문 아름다운 결혼식입니다. 첫째, 이 자리에 두 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 오신 분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두분을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원해서 모이신 사회의 존경받는 리더들입니다. 둘째, 두 분의 경우, 보통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사랑하여 이미 함께 살아보고 행복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게 됐으므로 세상 그 어느 결혼식보다도 차별화된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공률이 매우 높은 진심어린 사랑으로 결합된 축복 받은 결혼식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두분이 두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주례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인생은 사랑만 하기 에도 너무 짧다. 부부는 서로의 꿈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서로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의 꿈들이 한 방향을 향해 서로 시너지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으며 인생을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지구여행을 하듯이 물질에 치우치지 말고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한 팀이 되어 사랑이 듬뿍 담긴 알찬 가정을 꾸며나가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는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한다며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의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세호 차기총재는 이 결혼식 만찬을 위해 1백만원을 후원했으며 결혼식이 치러진 11월 5일이 자신의 생일이었기에 결혼식후 그의 소감을 "제 생애에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습니다. 사랑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로타리가 이제 다문화사회로 이어질 한국 사회 속에 아름다운 꿈과 사랑을 지닌 다문화 부부 한쌍을 탄생시킨 것은 마치 메마르고 상막한 허허벌판에 소중한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다함께 가야할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로타리 봉사활동이었습니다"라고 표현했다.

※결혼한 부부의 성함과 사진은 두 분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노출하지 않습니다.

# 한국로타리 최초의 클럽, 창립 90주년을 맞아! 서울로타리클럽 창립 90주년 기념행사 개최



서울로타리클럽 회장 한태숙



1927년 한국의 최초로 설립된 서울로타리클럽의 창립 90주년 기념행사 11월 10일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순동총재님과 윤형석재단이사님 그리고 이종원전총재님, 그리고 올해 60주년을 맞은 과거 서울클럽이 설립한 대전로타리클럽의 현 차기회장님들과 3680지구의 송현식 차기총재, 그 외

독일 로타리안 인 볼커 씨 등 여러 지구임원들과 타클럽 회장님들도 참석하였다. 와인 리셉션에 이어 7시부터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한태숙 회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 로타리 클럽의 역사와 그동안 회장으로 역임했던 장면 부통령, 백낙준 연세대 총장, 구평희 회장들로 이어진 역사를 발표하여 긍지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탈리아 교수인 Marco Clemente씨와 국제로타리 한국지국의 반문열 지국장님이 새로이 회원으로 가입하셨으면, 생일을 맞이한 회원들에게는 특별하게 서예로 유명한 이세창 회원이 쓴 "봉사"와 개인 이름이 새겨진 세계를 선물로 받았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90년의 역사와 최근클럽활동이 담긴 마치 한국 로타리 역사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스펙셜 비디오와 최상급 소프라노와 테너 클래식음악공연, 흥대 이온 밴드의 젊은이들의 기타연주와 노래, 그리고 로타리 회원인 박랑주 씨가 현재 파주와 남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수현 우리 옷"의 아름다운 한복을 협찬하고 회원들이 직접 입어보는 패션쇼가 진행되었다. 한복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90주년과 잘 어울리는 시간이었다. 패션쇼에는 클럽회원들과 영리더스 위성클럽 회원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한 것이 의미 깊었다. 이날 중요한 순서는 비밀리 이루어진 클럽시니어들을 위한 서프라이즈 케이크 커팅이었다. 그동안 클럽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신 원로 회원님들께 특별한 감사드리는 이벤트가 패션쇼 이루어졌다.

이순동 총재님의 축사는 한국 로타리의 역사가 서울 로타리 클럽의 역사 역음을 인지시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번성하여 명성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셔서 클럽 회원들의 마음을 뜨겁게했고 또 윤형석 이사님의 격려사는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과 도전의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번행사의 중요한 점은 한국의 유일한 영어로 주회를 보는 클럽으로서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했고 또 무엇보다 여러나라에서 온 젊은 영리더스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클럽의 미래를 보여 주는듯 했다. 앞으로 10년후 서울로타리클럽이 더욱 성장하여 한국에 유일하고 으뜸가는 클럽으로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조금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 새한양RC, 폴리오 기금 마련 문화주회 개최

새한양-누리위성클럽, 새한양로타랙트, 덕성여고인터랙트, 운현초 리틀랙트가 모두 참가한 패밀리 투게더 행사



새한양로타리클럽(회장 송원규)은 지난 10월 17일 저녁, 안국동 윤보선 고택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제목으로 문화주회를 가졌습니다.

클럽 차원에서 10월24일 세계 소아마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새한양 로타리클럽 송원규 회장과 윤상구 전RI이사를 비롯한 회원들과 새한양 누리 위성클럽 회원들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새한양 로타리클럽이 후원하는 새한양로타랙트클럽과 덕성여고인터랙트클럽, 운현초등학교 리틀랙트클럽 회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또한 3650지구 인터랙트 지도교사협의회 차상우 회장과 김재한, 손승기 중앙고 인터랙트 지도교사 등도 함께 참석했다. 모든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 나누고, 로타리의 주요봉사사업인 소아마비 박멸사업(End Polio Now)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위한 모금행사도 함께 있었다.

이날 특별히 운현초등학교 리틀랙트클럽 회원 중 동요대회 참가한 3명의 학생이 장기자랑으로 노래를 불러주었으며, 대한단무도협회 조성봉 관장의 단무도 시범 공연도 함께 관람했다. 그리고 행운권 추첨으로 제주도 왕복 2인 티켓, 영화관람권, 카페음료 무료시음권 등 푸짐한 선물도 나누어 가지며 따뜻한 봉사과 우정의 시간을 가졌다.



## 새강북로타리클럽 창립 22주년 기념주회 및 장학금 전달식

새강북로타리클럽(회장 김재갑)은 창립 22주년 기념주회가 지난 10월 10일 한신대학교 내 만우기념관 1층 하루밥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창립을 기념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 수여식에는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생활하는 대학생들 중 회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장학생 1명과 일반 장학생 2명 그리고 지역내 후원하는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 1명에게 각각 1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인문 캠퍼스 사회과학계열 1학년인 유영수군은 효문 고등학교 재학시절에도 새강북로타리클럽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어려운 가정형편이었지만 장학금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이렇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하여 회원님들께 감동을 주었고,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이현하양과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학년 임준원군은 하루에도 몇 가지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겸하며 하루 24시간을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들이었고,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추천을 받은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정유선양은 임투병중인 어머니, 남동생과 살며 본인도 유방암에 걸려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며 어렵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원님들은 장학생들에게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신세대 리더들로 커주길 바란다는 격려사와 함께 수여식을 마치고 22주년을 축하하며 회원모두를 대표하여 창립멤버 다섯분과 신입회원 한분을 모시고 축하떡 케이크 절단식을 가졌고, 회원 모두에게 새롭게 바뀐 로타리 배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